

일본어 복합동사의 일한번역에 관한 일고찰

-강조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양호성*
kopana@naver.com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 한국어 대응분석 |
| 2. 선행연구의 검토 | 4.1 강조 복합동사와 번역 |
| 3.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구조 | 4.2. 한국어 대응양상 |
| 3.1 동작과 변화의 의미 | 4.2.1 의태어+동사 |
| 3.2 동작의 순차적 의미 | 4.2.2 형용사(-게, -로, -히)+동사 |
| 3.3 다의 혹은 제3의 의미 | 4.2.3 접사 +동사 |
| 3.4 의미적으로 호응 | 4.2.4 부사 +동사 |
| | 4.2.5 보조동사(-어, -여) +동사 |
| | 5. 마치며 |

主題語: 복합동사(compound verb), 결합조건(combination condition), 전항요소(preceding clause), 후항요소(following clause), 강조 복합동사(emphatic compound verb)

1. 시작하며

복합동사(compound verb)는 두 개의 단순동사가 합쳐져 하나의 동사가 된 것이다. 예를 들면 「食べ終わる」는 「食べる」와 「終わる」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어 복합동사의 후항요소로서 다른 동사에 주로 붙는 동사로는 1)동작의 시작을 나타내는 「~始める」「~出す」「~かける」, 2)동작이나 작용의 계속을 나타내는 「~続ける」「~通す」, 3)완료를 나타내는 「~切る」「~上げる」등이 있다. 복합동사는 어휘론과도 관련되지만 생산성이 높은 동사로서, 문법의 문제로서 빈번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복합동사 중에서 후항요소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본래의 의미에서 전이되어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일본어 복합동사를 번역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번역에서 복합동사가

* 대구외국어대학교 일본어통번역학과 조교수

어려운 이유로 이희정(2008)은 “충분한 학습단계를 밟지 않고 고급단계로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 다시 말해서 “초급단계의 동사학습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학습자 역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의 하나이며, 일본어 학습자는 개개의 단순동사의 학습에는 충실한 반면 복합동사에 관해서는 충분한 학습을 거치지 못한 채로 고급단계에 진입하여 빈출하는 복합동사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즉 단순동사가 이미 습득한 어휘라 하더라도 이들이 결합하는 복합동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일본어 동사의 단순동사 「切る」의 경우 원래는 아래 예문(1)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을 「베다/자르다」의 의미이다. 이것이 (2)와 같이 추상화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나 「인연」과 같은 추상명사를 「끊다」는 의미가 전이된다. 다음 예문은 두산동아 일한사전에서 인용하였다.

- (1) 大根を切る。 무를 자르다.
 (2) 縁を切る。 인연을 끊다.

그런데 상기 「切る」가 각각 동사의 전향요소와 후향요소로 이루어진 강조 복합동사로 쓰일 경우의 번역예문을 검토해 보면 그 다양성은 위의 2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 (3) 坂をのぼり切る。 언덕길을 끝까지 오르다
 (4) 売り切る。 다 팔아치우다
 (5) 分かり切っている。 뻔히 알고 있다
 (6) 強行軍で疲れきった。 강행군으로 기진맥진이 되었다.
 (7) あいつには困りきった。 그 녀석한테는 두 손 다 들었다.
 (8) 分からぬことを分からぬと言い切る勇気が必要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잘라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어 복합동사의 후향요소가 추상화되었을 때는 한국어 번역에서 다양한 번역표현이 존재한다. 이러한 표현형식을 한국어 통사규범에 맞는 표현으로 번역하였을 때 도착어의 일정한 문법적 결합형식을 중심으로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학계에서 아직 강조 복합어라는 의미의 개념정의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조 복합어의 정의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먼저 吉川武時(1989)의 의미 분류에

1) 이희정(2008) 『日本語 複合動詞에 對應하는 韓國語 表現에 관한 一考察』 『日本近代學研究』 제17집, p.54

따르면 다음과 같다.

- 1) 국면을 나타내는 것²⁾
- 2) 방향을 나타내는 것³⁾
- 3) 동작방법을 나타내는 것⁴⁾
- 4) 대상관계를 나타내는 것⁵⁾
- 5) 강조를 나타내는 것⁶⁾
- 6) 동작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⁷⁾

본고에서는 복합동사의 의미특성 중에서 吉川武時(1989)의 일본어 복합동사 의미 분류에서 2개의 동사 결합(동사+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번역표현에서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문형 즉, ‘부사+동사’의 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번역표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복합동사로 상기 5)강조를 나타내는 복합동사를 ‘강조 복합동사’라고 정의한다. 본고의 분석 자료로서 일본어 원문 텍스트는 일본문학 텍스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연애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ノルウェイの森(上)」에서 강조 복합어를 추출하여 한국어 번역은 필자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대안번역을 행하고

-
- 2) 국면(aspect)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는 동작의 개시, 계속, 종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동작의 개시의 경우 「雨が降り始める」, 「突然雨が降り出した」, 「読みかけた本をどこかに忘れてきた」에서처럼 「~はじめる」, 「~だす」, 「~かける」와 같은 후향동사를 갖는 동사가 이에 속한다. 歩きつづける나 生き抜く와 같이 동작의 계속이나 종료를 나타내는 복합동사도 있다.
 - 3) 방향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에서는 上下内外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新しいロケットを打ち上げる에서 打ち上げる와 같이 上方向을 나타내는 것과 荷物を積み下ろす와 같은 積み下ろす는 下方向이고 「犯人を倉庫に閉じ込めた」에서 예문과 같이 「閉じ込める」와 「目から涙があふれてたあふれてた」와 같은 あふれてる와 같은 복합동사의 경우이다.
 - 4) 동작방법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로는 예문 「レポートを何回も書き直した」, 「書き直す夏休みには推理小説読みあさる」의 예문에서처럼 「~なおす、~なれる、~あさる、~かえる」와 같은 후향동사를 가지는 동사를 말한다.
 - 5) 대상관계를 나타내는 복합동사에는 「包帯を足に巻く(巻き付ける)」와 「包帯で足を巻く」를 비교하면 「巻く」로서는 2개의 보어를 가질 수 있는데 즉 ‘직접대상(足)과 ‘재료(包帯)에 보어가 결합 는 복합동사가 있다. 즉, 「巻き付ける」에서는 직접대상(包帯)과 간접대상(足)두 가지 보어를 가질 수 있다.
 - 6) 어떤 동작을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동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考える」에 대하여 「考えこむ」는 ‘깊이 생각하다’의 의미가 된다. 이 경우 문법적으로는 무의지 동사가 되는데 강조를 나타내는 동사가 모두 무의지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考えこんでいる」, 「ご飯を食べすぎる」, 「あたりを見まわしました」, 「痛めつけてやろう」등의 예문에서와 같이 考え込む(깊이 생각하다), 食べすぎる(지나치게 먹다), 見まわす(훑 둘러보다), 痛め付ける(흔내주다)와 같이 전항요소의 기본의미에 후항요소가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복합동사를 말한다.
 - 7)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복합동사로서는 예문 「学問の仕方を学びとる(학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다)」, 「殴りこころされた(얻어맞다)」, 「敵を打ちたおす(때려눕히다)」 学びとる、殴りこころす、打ちたおす와 같은 복합동사로 의미특성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번역문형의 결합형식을 분석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좋은 번역 결과물과 원문의 대응패턴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번역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앞장에서도 언급한 吉川武時(1989)는 복합동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어휘론과도 관련되지 만 후향동사가 이용도가 높은 점에서 문법문제로서 취급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복합동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⁸⁾

- (1) 국면을 나타내는 것
降り始める、歩き続ける、生き抜く
- (2) 방향을 나타내는 것
打ち上げる、積み下ろす、閉じ込める
- (3) 동작의 방법을 나타내는 것
書き直す、読みあさる
- (4) 대상관계를 나타내는 것
話し合う、結び付ける
- (5) 강조를 나타내는 것
考え込む、見回す、痛め付ける
- (6) 동작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
学び取る、撃ち殺す、殴り倒す

이희정(2008)은 일간신문의 한일대역 예문을 중심으로 일본어 복합동사에 대응하는 한국어 대응 패턴을 고찰하였는데, 그 대응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동순의 동사+동사
転がり始める、受け入れる
- (2) 역순의 동사+동사
立ち上がる、踏み出す

8) 吉川武時(1989), 前掲書, p.75

- (3) 고유어 단순동사
 整え直す、見送る
- (4) 부사+단순동사
 引き締める、焼き付ける
- (5) 한자어+하다
 追い越す、踏み切る、引き起こす
- (6) 기타
 恐れ入る、うぬぼれすぎる

향후 통계적 조사와 함께 한국어인 일본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연구를 위한 시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경수(2009)는 일본어 복합어의 한국어 대응패턴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9)

- (1)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
 思い出す、考え出す、聞き出す
- (2) 한국어에서 역순으로 대응
 泳ぎ切る、乗り換える、見回す
- (3) 한국어 ‘한어+하다’ 에 대응
 思い起こす、切り詰める、呼び出す
- (4) 한국어 수동형과 사역형에 대응
 はりつめる、揺り動かす、ひっくりかえる
- (5) 한국어 단일어로 굳어진 표현 대응
 連れ立って、思いきって、わかりきった

이희정(2008)과 이경수(2009)의 분류 (1)과 (2)는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대조하여 같은 전향요소와 후향요소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동순을 취하는지 아니면 역순을 취하는지, 즉 도착어 번역순서에 주목하여 분류하였고, (3), (4), (5)는 원문과 상관없이 한국어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번역어에서 결합형식에 주목하여 분류하고 일한어간 번역표현의 대응패턴을 밝혀낸 것으로 평가할 만 하다.

여기 선행연구와 본고의 차별성은 선행연구의 경우, 복합동사의 의미구조 전체를 다룬

9) 이경수(2009) 『일본어문법 달인이 되는 법』 사람인, p.185

것이고 본고의 경우는 복합동사 중에서 일한번역을 할 때 가장 단순히 두 동사의 의미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표현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며 한국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역할을 하는 동사로 제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구조

3.1 동작과 변화의 의미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구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전향요소와 후향요소가 각각 동작과 변화의 의미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押し倒す」「突き出す」라는 복합동사는 존재하는데 「倒し押し」「出し突く」등과 같은 복합동사는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동작동사는 움직임의 형태에, 변화동사는 움직임의 내용에 주목한다고 한다.¹⁰⁾ 예를 들면 「押す」「突く」 등은 주체가 객체로 향하는 움직임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그것에 의해 객체에 어떤 변화가 유발되는가에 무관심한 동사이며, 반대로 「倒す」「出す」 등은 객체에 유발되는 변화 「倒れる」「出る」에 오로지 주목하여 그것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동작형태(수단, 방법, 원인 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押し倒す」「突き出す」와 같은 복합동사는 이와 같은 동작동사와 변화동사와의 조합으로 움직임의 형태와 내용의 양면을 분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각의 단순동사의 부족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단순동사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3.2 동작의 순차적 의미

동시에 ‘동작동사+변화동사’라는 결합은 동작의 형태와 변화의 내용을 시간적인 전후관계에 대응하여 순차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동사+동사’ 형태가 아닌 복합명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隠し縫い」「崩し書き」「添え書き」「すかし織り」「ぼかし染め」「寄せ植え」 등, 변화의 내용을 나타내는 요소가 전향에, 그것을 유발하는 동작의 형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후향에 배열된다. 이것은 하나의 움직임을 마찬가지로 동작형태와 변화내용으로 분석해도 그 움직임

10)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教育国語』53, pp.33-44

을 하나의 동사로서 표현하던지 움직임에만 주목하여 그것을 시간적인 전후관계로부터 멀어져 명사로서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 「押す」「倒す」와 「突く」「出す」가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동작동사와 변화동사라는 차이점과 함께 그것들의 결합이 시간의 전후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성립할 수 없는 복합동사로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石井 1983).

3.3 복수대응 혹은 제3의 의미

일반적으로 일본어 복합동사는 ‘전향동사+후향요소’의 결합함으로써 전향요소+후향요소가 동순의 의미결합(降り始める、受け入れる)와 역순의 의미결합(立ち上がる:일어서다, 踏み出す:내딛다)이 있는데 이와달리 두 가지 의미결합이나 제3의 의미결합의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예를 들어「思い切る」의 경우 도착어 번역어로서 ‘단념하다’ 와 ‘각오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思い切って」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복합동사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¹¹⁾ 「見合わせる(중지되다)」, 「見兼ねる(참혹하다)」, 「待ち合わせる(만나기로 약속하다)」처럼 제3의 동사를 의미의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¹²⁾

다음 예문을 보면 (예문은 ニューセンチュリー和英辞典에서 인용하였다.)

- (1) 顔を見合わせる。
얼굴을 마주보다.
- (2) 試合開始を10時まで見合わせる。
시합개시를 10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 (3) 雨になりそうだったのでハイキングは見合わせた。
비가 내릴듯하여 하이킹은 중지되었다.

예문 (1)(2)(3)은 일본어 복합동사「見合わせる」의 한국어 번역표현은 ‘마주하다’, ‘연기하다’, ‘중지되다’와 같이 한 개의 출발어 텍스트가 복수의 도착지에 대응하고 있다.

11) 예를 들면 「考えたすえに彼との結婚は思い切ることにした」의 경우는 ‘생각 끝에 그와의 결혼은 단념하기로 했다’와 「思い切って彼女にデートを申し込んだ」의 경우 ‘각오하고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12) 예를 들면 「雨になりそうだったのでハイキングは見合わせた」의 경우 ‘비가 내릴 것 같아서 하이킹은 중지되었다’ 「見るに見兼ねる状態だった」의 경우는 ‘너무나 참혹했다’와 같이 제3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彼と駅前で待ち合わせることにした」의 경우 ‘그와 역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로 번역되는 경우이다.

3.4 의미적으로 호응

다음은 「しみこむ」라는 복합동사가 있는데 「こじこむ」라는 복합동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こむ」는 ‘어떤 물건의 내부로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しみる」는 그 주체의 움직임의 특징으로서 ‘물건의 내부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こむ」가 가진 특징 또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서로 호응한다. 「こむ」와 결합함으로써 ‘내부로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こじこむ」는 그 주체의 움직임의 방향이 오히려 ‘사물의 내부에서 외부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こむ」의 의미와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こじこむ」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長嶋善郎 1976).

다음은 「歌い出す」와 「吐き出す」의 구조의 차이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歌い出す」는 「出す」가 보조동사 역할을 담당하여 「歌い始める」의 의미가 되고 「出す」는 본래 객체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것은 「吐き出す」의 경우 「吐く」의 객체와 동일하다. 「歌い出す」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오다’라는 변화의 의미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歌う」라는 주체 동작이 다른 객체인 「出る」라는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吐く」로 나타내는 동작은 주체가 객체를 ‘내부로부터 외부’로 이동시킨다는 방향성의 특징이 있으며 이것이 「出る」라는 변화의 결과에 호응하여 복합동사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어 대응분석

4.1 강조 복합동사와 번역

의미가 다른 단어가 동사와 결합된 동사를 복합동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어 복합동사는 동사의 연용형에 다른 성질의 동사를 결합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동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우 결합형식이 다양한 만큼 의미형식이나 표현형식에 있어서 복잡한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일한 번역시에는 일대일 대응번역에 의존해서는 낭패를 보는 빈도가 높다.

예를 들면

(1) 電車からバスに乗り換える。

전차에서 버스로 갈아타다.

상기 예문(1)의 경우 「乗り換える」라는 복합동사는 당연히 「乗る」라는 동사와 「換える」라는 동사가 결합된 복합동사로서 일대일 대응번역을 한다면 ‘타고 바꾸다’라는 어색하고 난해한 번역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일본어 복합동사의 전향요소와 후향요소가 한국어에서는 각각 역순의 대응패턴을 취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복합동사는 ‘동작동사+변화동사’와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후향요소인 변화동사가 전향요소의 동작동사를 수식하는 형식을 취하여 전향요소를 한층 강조하는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복합동사도 표현형식이 어렵지만, 보다 추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문은 1개의 일본어 복합동사에 대하여 2개의 한국어 번역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 주의가 필요하다.

(2) 山を乗り越える。

산을 타고 넘다.(동사+동사)

(3) 危機を乗り越える。

위기를 극복하다.(한어+하다)

예문 (2)는 일반적인 자동사이지만 예외적으로 격조사 「を」와 함께 ‘산을 타고 넘다’의 의미를 갖는다. (3)의 예문은 일반적인 의미 ‘타고 넘다’에서 ‘극복하다’와 같이 보다 추상화하여 비유표현으로 쓰인다. 이 경우의 복합동사는 일본어의 대응패턴은 ‘동사+동사’인데 반하여 한국어 결합형식은 ‘한어+하다’ 형식에 대응하여 결합형식도 표현형식도 달라졌다. 이러한 복합동사의 의미 분류 중에서 일한번역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강조 복합동사인데 그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번역과정을 거친 한국어 표현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 飲みすぎて病氣になった。

과음해서 병이 나다.(한어+하다)

(4) みなに反対されて考え込む。

모두가 반대해서 고민에 빠지다.(명사+동사)

(5) 荒波を乗り越える。

거친 파도를 이겨 내다.(동사+보조동사)

예문 (4) 「飲みすぎる」는 일본어 결합형식에서는 ‘동사+동사’의 조어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한어+하다’와 같은 대응패턴을 취하여 ‘과음+하다’로 번역된다. 예문(5)에도 일본어 결합형식에서는 예문(4)와 같은 조어형식이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명사+동사’와 같은 대응패턴을 취하여 ‘고민(에)+빠지다’로 번역되었다.

또한 예문 (6)도 예문(4)와 같은 ‘동사+동사’ 형식이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복합동사가 아닌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결합된 형식으로 달라진다.¹³⁾ 결합형식이 달라지면 당연히 번역표현도 달라질 수 있으며 번역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¹⁴⁾

복합동사 중에는 어떤 동작을 강도있게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考える」에 대하여 「考え込む」는 깊이 생각하는 의미가 된다.¹⁵⁾ 다만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동사가 전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6) みんなに反対されて考え込む。

모두가 반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다.(형용사+동사)

(7) 胃が痛いのは食べ過ぎたせいです。

위장이 아픈 것은 지나치게 먹은 탓이다.(형용사+동사)

(8) あたりを見回す。 주변을 둘러보다(보조동사+동사)

(9) 部屋の中を歩き回る 방안을 마구 돌아다니다(부사+동사).

(10) 弱点について相手を痛め付ける。

약점을 들추어 상대를 몰아세우다.(보조동사+동사)

상기 예문에서 나타내듯이 일본어의 강조복합어는 특히 전항요소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은 후항요소가 변화의 내용을 나타냄으로써 번역시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표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합동사의 번역연구에서 난해한 점은 번역의 속성이 그러하듯 당연한 말이지만 도착언어의 번역문이 일대일 대응번역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痛め付ける」라는 복합동사는 사전에서는 ‘심하게 꾸짖다’, ‘훈내주다’, ‘홀뎁다’, ‘뎁달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 용례와

13) ‘이겨 내다’, ‘막아 내다’, ‘참아 내다’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 구성으로서 두 개의 단어이고, 사전에 실려 있는 ‘돌려내다, 들어내다’는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다.

14) ‘한어+하다’의 형식을 빌어 ‘과도를 극복하다’라고 번역한다면 고난→극복, 파도→이겨 내다 와 같이 ‘한어 명사+한어동사’, ‘고유어 명사+고유어 동사’와 같은 전후항이 서로 호응하는 결합이 안정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15) 이 경우 문법적으로는 무의지 동사가 된다.

같이 맥락에 따라 번역되어 일정한 의미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강조 복합동사의 용례를 보면

- (11) 足腰が立たないほど痛め付けた。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언어터졌다.
- (12) 彼の神経は戦争でさんざん痛め付けられた。
그의 신경은 전쟁에서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
- (13) この木は排気ガスで痛め付けられている。
이 나무는 배기가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 (14) 娘をあんなに痛め付けなくたっていいのに。
딸을 저렇게 혼내지 않아도 될 텐데.

이와 같이 얼핏 보기에 같은 어휘의 번역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복합동사의 어휘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이나 전후관계, 문맥에 따라 흔들리거나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번역문에 대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¹⁶⁾

4.2 한국어 대응패턴

일본어 복합동사를 한국어 번역하였을 때 나타나는 도착언어(한국어)표현의 의미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용례 예문은 村上春樹의 『ノルウェイの森』(上)에서 인용하였다.

4.2.1 의태어+동사

- (1) 凍りつく→꽁꽁 얼어붙다
細長い雲が凍りつくような青い天井にびたりとはりついていた。 (ノルウェイの森, p.9)
가늘고 긴 구름이 꽁꽁 얼어붙은 파란 천장에 달라 붙어있었다.
- (2) 煮つめる→바싹 줄이다.
世の中のあらゆる種類の暗黒を煮つめたような濃密な暗黒が。 (前掲書, p.13)

16) 번역연구는 귀납법적 입장에서 특수한 사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연구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암흑을 바싹 줄인 듯한 진한 암흑이…

(3) へばりつく→찰싹 달라붙다

ごみ箱の底にはかびのはえたみかんの皮がへばりついているし、(前掲書, p.30)
쓰레기통 바닥에는 곰팡이가 핀 귤껍질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4) 禿げあがる→홀랑 벗겨지다

六十歳くらいの背の高い額が禿げあがった男だった。(前掲書, p.191)
60세 정도 되는 높은 이마가 홀랑 벗겨진 남자였다.

(5) 燃えさかる→활활 타오르다

その光はまるで燃えさかる火の粉のように水面を照り映えていた。(前掲書, p.97)
그 빛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같이 수면을 비추고 있었다.

용례(1)의 「凍り付く」는 일본어 전후 배치 그대로 ‘자동사+자동사’ 형으로 「凍り付くような寒さ」라고 하면 ‘얼어붙는 듯한 추위’로 번역하며 「雪が凍り付く道を歩く」는 ‘눈이 푹푹 얼어붙은 길을 가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문맥에 따라서는 ‘푹푹’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하지 않고 ‘얼다+붙다’ 형으로 한국어로도 복합동사로 번역될 수 있으므로 중복 대응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용례(4)의 「禿げ上がる」는 ‘이마에서 머리 위까지 벗겨지다’, ‘대머리지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額の禿げ上がった人」는 ‘이마가 홀랑 벗겨진 사람’으로 ‘홀랑+벗겨지다’ 는 ‘의태어+복합동사’ 형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홀랑’은 ‘숨겨지거나 가려져 있던 것이 모두 드러나는 모양’을 가리키는 한국어로 ‘벗겨지다’와 잘 호응되는 의태어이다.

기타, ‘의태어+동사’에 대응하는 일본어 복합동사는 다음과 같다.

<표 2> ‘의태어+동사’ 형식의 번역어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1	抱きしめる	꼭 끌어안다	62
2	詰め込む	꽉꽉 채우다	95
3	煮つめる	바싹 줄이다	13
4	崩れ落ちる	폭삭 무너지다	281
5	そびえ立つ	우뚱 솟아있다	25
6	ねむりこむ	폭 잠들다	193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7	はげあがる	홀랑 벗겨지다	191
8	もえさかる	활활 타오르다	97
9	かぎつける	쿵쿵 냄새맡다	282
10	へばりつく	찰싹 달라붙다	30
11	凍りつく	꽁꽁 얼다	9
12	飲み下す	꿀꺽 삼키다	221

4.2.2 형용사/자동사(-히, -게)+ 동사

(6) 考えこむ→ 골똘히 생각하다.

彼女はテーブルの上に両手を置いてまた何かを考えこんでいた。 (前掲書, p.43)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양손을 얹어놓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7) 待ちかゝる→ 애타게 기다리다

子供の頃、発売日を待ちかゝて少年雑誌を買いに走っていったのと同じような本屋だった。

(前掲書, p.136)

어릴 적 발행일을 애타게 기다리던 소년잡지를 사러갔던 것 같은 책방이었다.

(8) 笑い転げる→ 자지러지게 웃다

二人にはそういうのが珍しいらしく笑い転じて聴いていた。 (前掲書, p.266)

두 사람은 그런 것이 신기한 듯 자지러지게 웃으며 들었다.

용례(6)는 「考え込む」는 ‘골똘히 생각하다’, ‘생각에 잠기다’로 번역하는데 「あまり考え込まない方がいいよ」라고 하면 ‘너무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라든지 「頭を抱えて考え込んだ」 ‘머리를 감싸고 생각에 잠겼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복합동사라 하더라도 말하는 대상과 문맥에 따라서 달리 번역될 수 있다. 한국어 ‘골똘하다’는 형용사로서 ‘한가지 일에 정신을 쏟아 딴 생각이 없다’는 의미로 골똘히는 부사화된 말이다.

용례(8)의 「笑いこける」는 ‘자지러지게 웃다’, ‘포복절도(抱腹絶倒)하다’로 번역된다. 즉, ‘배를 잡고 넘어지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로 ‘형용사+게 +동사’형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漫才を聞いて笑いこける」라고 하면 ‘포복절도하다’와 같이 ‘한어+하다’형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 중복대응할 수도 있다. 한국어 ‘자지러지다’는 자동사로 ‘장단이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온몸에 짜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고 갖게 들리다’는 의미인데 부사화되어 ‘자지러지게’라는

말을 만든다.

기타, ‘형용사/자동사 + (-히, -게)’ 와 연결하여 부사화 되는 일본어 복합동사는 다음과 같다.

<표 3> 「형용사/자동사(-게, -로, -히)+ 동사」형식의 번역어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1	考え込む	골똘히 생각하다	43
2	まちかぬる	애타게 기다리다	137
3	にらみつける	매섭게 쏘아보다	275
4	読みすぎる	지나치게 읽다	295
5	貪り食べる	계걸스럽게 먹다	273
6	咲き乱れる	흐드러지게 피다	280
7	笑いこける	자지러지게 웃다	266
8	そぎおとされる	얇게 도려내다	271

4.2.3 접사+동사

(9) 踏みつける→짓/밟다

解休してバラバラにして、足で踏みつけて粉々にしてくれ。 (前掲書, p.89)
 갈기갈기 해체해서 발로 짓밟아서 가루로 만들어주게.

(10) 澄みきる→ 해/맑다

彼女の素振りには全く変化がなかったし、その目はいつもと同じように澄みきっていた。 (前掲書, p.273)
 그녀의 몸짓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 눈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맑았다.

(11) 巻きつける→ 휘/감다

彼女はそれをひもみたいにぐるぐると指に巻きつけた。 (前掲書, p.297)
 그녀는 그것을 끈같이 칭칭 손가락에 휘감았다.

(12) 擦りきれる→ 다/닿다

昔はこのレコードを擦りきれるくらい聴いたわ。 (前掲書, p.301)
 옛날에는 레코드를 다닿을 정도로 들었다.

(13) 生れ落ちる → 갓태어나다

キズキと彼女とは殆んど生れ落ちた時からの幼なじみで、家も二百メートルとは離れていなかった。 (前掲書, p.47)

두 사람은 거의 갓 태어났을 적부터 친구로 집도 2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용례(9)의 「踏み付ける」는 ‘짓밟다’, ‘밟아 누르다’라는 의미와 추상화되어 ‘무시하다’, ‘깎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人を踏み付けるやり方だ」는 ‘사람을 깎보는 처사다’라고 번역할 수 있고 「後輩に踏み付けられる」는 ‘후배에게 무시당하다’고 번역한다.

용례(10)의 「澄みきる」는 ‘아주 맑다’는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水のように澄みきった秋空」는 ‘맑디맑은 가을 하늘’이고 「澄みきった心境」는 ‘티없이 맑은 심경’으로 번역한다. ‘자동사+타동사’의 결합 형태이지만, 후항요소의 「切る」는 ‘자르다’와 같은 단순동사의 의미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澄んで切る」를 도착어로 ‘맑고 자른다’라고는 번역할 수 없다.

기타 ‘접사+동사’에 대응하는 일본어 복합동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 4> 「접사+동사」 형의 번역어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1	踏みつける	짓밟다	251
2	澄み切る	해맑다	273
3	巻きつける	휘감다	297
4	擦り切れる	다닿다	301
5	生れ落ちる	갓태어나다	47

4.2.4 부사+동사

(14) 塞ぎこむ → 매우 침울해지다

たとえばべらべらとひとりでしゃべりまくったかと思うと次の瞬間には塞ぎこんだりわ。

(前掲書, p.261)

예를 들면 혼자서 마구 떠들어댄다고 해서 다음 순간 매우 울적해지기도해요.

(15) 歩きまわる →마구 돌아다니다

雪の中を一日パタパタ歩きまわって汗だくになって」とレイコさんは言った。(前掲書, p.235)

눈 속을 하루 마구 돌아다니다 땀을 흘린다고 레이코는 말했다.

(16) 浸りきる→ 흠뻑 젖다

記憶の奔流に浸りきっていて、直子がそっとドアを開けて部屋に入ってきた。(前掲書, p.212)
기억의 거친 몰살에 흠뻑 젖어서 나오코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17) 泣きつづける→ 줄곧 울다

その夜、泣きつづける直子の服をゆっくりとやさしく脱がせていった。(前掲書, p.270)
그날 밤 줄곧 우는 나오코의 옷을 천천히 부드럽게 벗겼다.

용례(14)의 「塞ぎ込む」는 ‘타동사+자동사’의 복합동사로 ‘가로막다’, ‘틀어막다’의 의미. 일반적으로 「飛び込む」, 「吹き込む」와 같이 ‘자동사+자동사’ 결합이 대부분이며 후향요소 「こむ」는 당연히 ‘들어가다’는 의미는 아니다. 「耳を塞ぎ込む」는 ‘귀를 틀어막다’, 「出入り口を塞ぎ込む」는 ‘출입구를 가로막다’로 번역할 수 있으며 추상화 구체화를 거쳐 ‘매우 우울해지다’ 또는 ‘울적해지다’로 번역할 수 있다. 「試験に落ちて塞ぎ込む」는 ‘시험에 떨어져 울적해지다’, 「塞ぎ込んで口も利かない」는 ‘침울해서 말도 하지 않는다’고 번역된다.

용례(15)의 「歩きまわる」는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쉬지 않고 걷는 동작을 말한다. 「一日中歩きまわった」는 ‘하루 종일 줄곧 걸었다’, 「注文取りに歩きまわる」는 ‘주문을 받기 위해 줄곧 돌아다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우+울적해지다’ ‘마구+ 돌아다니다’ ‘흠뻑+젖다’와 같이 전향요소인 부사어와 후향요소의 동사와 호응관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도착어로서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번역어를 만들 수 있다.

<표 5> 「부사+동사」형의 번역어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1	ふさぎこむ	매우 울적해지다	261
2	歩き回る	마구 돌아다니다	235
3	ひたりきる	흠뻑 젖다.	212
4	泣きつづける	줄곧 울어대다	270

4.2.5 보조동사(-어, -여) + 동사

(18) のめりこむ →말려들다

そういうのって何をやってもうまくのめりこめないんです。(前掲書, p.235)

그런 건 무엇을 하든 말려들지 못하거든요.

(19) 差し込む → 들이비치다

窓からは一昔前のポーランド映画みたいなうす暗い光が差し込んでいた。(前掲書, p.138)
참문에서 오래 전에 폴란드 영화같이 어두컴컴한 빛이 들이비치고 있었다.

(20) 閉じこもる → 틀어박히다

十七から二十一まで四年間家の中に閉じこもって、結局ある日突然外に出てって電車にとびこんじゃったんだ。(前掲書, p.297)
17살에서 21살까지 4년간 집안에 틀어박혀서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바깥으로 나와 전철에 뛰어들었다.

(21) 乗りこむ → 올라타다

集落にバスが停まるたびに何人かの客が降りた。乗りこんでくる客は一人もいなかった。(前掲書, p.189)
마을에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몇 명의 손님이 내렸다. 올라타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용례(19)의 「差し込む」는 ‘(햇빛이)들어오다’, ‘들이비치다’ 는 의미의 복합동사로 「窓から差し込む日差し」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プラグを差し込む」는 ‘플러그를 꽂다’, 「裏で差し込む奴がいる」는 ‘뒤에서 혼수하는 놈이 있다’와 같이 ‘한어+하다’ 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閉じこもる」는 ‘틀어박히다, 칩거(蟄居)하다’, 「自分の殻に閉じこもって心を開こうとしない」는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어 번역 ‘틀다+박히다’도 복합어로서 전항요소가 후항요소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맥에 따라서는 ‘칩거하다’라는 번역어에도 대응하므로 이 경우 ‘漢語+하다’ 형을 취해 중복대응 번역어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내용을 가리키기 위한 복합동사에 대응하는 한어동사는 학습하기 어렵기는 하나 한번 학습한 이후부터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압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어+하다’형도 적극적으로 번역어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타, ‘보조동사(-어, -여) + 동사’ 형의 번역에 대응하는 일본어 복합동사는 다음과 같다.

<표 6> ‘보조동사(-어, -여) + 동사’형의 번역어

	일본어	한국어	페이지
1	のめりこむ	말려들어가다	235
2	差し込む	들어비치다	221
3	閉じこもる	틀어박히다	297
4	乗り込む	올라타다	189

5. 마치며

앞장에서 고찰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어 강조 복합어의 한국어 번역 결과에서 (1)의태어+동사 (2)형용사+동사 (3)접사+동사 (4)부사+동사 (5)동사+동사 와 같은 5가지 문법적인 대응패턴을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범주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강조복합어는 주로 전향요소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후향요소가 전향요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후향요소가 전향요소 앞에 위치하여 동사를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의태어, 형용사, 접두사, 부사, 동사와 함께 본래의 의미를 가진 전향요소를 수식하는 형식을 취하고 전향요소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기와 같은 복합동사의 예문을 검토하여 출발언어인 원문과 도착언어 번역문을 비교하면 의미적으로 출발언어의 후향요소가 도착언어의 전향요소로, 출발언어의 전향요소가 도착언어의 후향요소로 변환되어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간의 의미적 역전현상을 나타낸다.

- (1) 老い込む 폭삭 늙다
- (2) 黙り込む 계속 입을 다물다
- (3) 冷え込む 갑자기 추워지다
- (4) 教え込む 철저하게 가르치다
- (5) 信じ込む 굳게 믿다

즉, 일본어 복합동사의 전향요소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후향요소가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일본어 복합동사의 후향요소가 한국어 번역어에서는 전향요소로서 후향요소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문에서처럼 일본어 동사 「こむ」는 한국어 번역어로 ‘폭삭’, ‘계속’, ‘갑자기’, ‘철저하게’, ‘굳게’와 같은 의태어, 부사, 형용사와 결합하여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사법과는 달리 단어의 위치가 서로 역전이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복합동사의 번역연구에서 어려운 점은 번역의 속성이 그러하듯 출발언어인 일본어 복합어가 도착언어의 번역문에 일대일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전에서는 2,3개의 고정된 의미로 실려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주제와 대상, 전후의 맥락에 따라 번역되어 일정한 의미에 고정되지 않는 등가번역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강조 복합동사의 번역은 한국어 동사의 의미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함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에 걸친 표현 형식과 한국어 통사규범에 맞는 번역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향후 출발언어의 문학작품의 다양한 예문을 발굴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도착언어 관습, 즉 한국어 통어법(syntax)에 부합하는 자연스럽고 가독성이 높은 번역기법을 개발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石井正彦(1983) 「現代語服語動詞の語構成分析における一観点」『日本語学』3月号, pp.77-90
 奥田靖雄(1978) 「アスペクトの研究をめぐって(上)」『教育国語』53, pp.33-44
 吉川武時(1989) 『日本語文法入門』アルク, pp.75-81
 森山卓郎(1988) 『日本語動詞述語文研究』明治書院, pp.45-54
 森田良行外(1989)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おうふう社, pp.50-57
 寺村秀夫外(1997) 『ケーススタディ日本文法』おうふう社, pp.56-61
 高見澤孟(2005) 『기본일본어교육사전』시사일본어사, p.94
 森田良行(2008) 『動詞・形容詞・副詞の事典』東京堂出版, pp.39-45
 長嶋善郎(1976) 「複合動詞の構造」『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pp.63-104
 이희정(2008) 「日本語 複合動詞에 對應하는 韓國語 表現에 관한 一考察」『日本近代學研究』제17집, pp.53-63
 이경수(2009) 『일본어문법 달인이 되는 법』사람인, pp.181-186

[분석자료]

村上春樹(2004) 『ノルウェイの森』(上)講談社

논문투고일 : 2012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21일

 <要旨>

일본어 복합동사의 일한번역에 관한 일고찰

-강조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본론에서 고찰한 시사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어 강조 복합어의 한국어 번역 결과에서 (1)의태어+동사 (2)형용사+동사 (3)접두사+동사 (4)부사+동사 (5)동사+동사와 같은 5가지 문법적인 결합형식을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범주의 순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강조복합어는 주로 전항요소가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후항요소가 전항요소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후항요소가 전항요소 앞에 위치하여 동사를 강조하는 수식어로서 의태어, 형용사, 접두사, 부사, 동사와 함께 본래의 의미를 가진 전항요소를 수식하는 형식을 취하고 전항요소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하기와 같은 복합동사의 예문을 검토하여 출발언어 원문과 도착언어 번역문을 비교하면 의미적으로 출발언어의 후항요소가 도착언어의 전항요소로, 출발언어의 전항요소가 도착언어의 후항요소로 변환되어 출발언어와 도착언어 간의 의미적 역전현상을 보인다.

A Study on Japanese-to-Korean Translation of Japanese Compound Verbs

The present study considered some implications and drew conclusions as below.

First, this study examined 5 forms of grammatically combined Japanese emphatic compound words translated into Korean: (1)mimetic word+verb, (2)adjective+verb, (3)prefix+verb, (4)adverb+verb and (5)verb+verb. In compound words, the preceding clause conveys the meaning, while the following clause extends or reinforces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clause. When translated into Korean, the following clause is positioned before the preceding clause as a modifier emphasizing the verb, and describes the preceding clause carrying the original meaning together with mimetic words, adjectives, prefixes, adverbs and verbs, playing adverbial roles modifying the preceding clause.

Second, comparing the original texts in the source language with their translated versions in the target language as in the following examples of compound verbs, the following clauses in the source language turn into the preceding clauses in the target language, and vice versa, which shows a semantic reversal.